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창립 80돐을 맞이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조선



2026 6

(843)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 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축하방문하시였다
- 10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운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6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1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20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시였다
- 24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군의 사, 려단 지휘관회합을 소집하시고 그들을 만나시였다
- 2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3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36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소식

- 40 Ⅱ 영생의 단상에 쌓이는 꽃송이들
- 42 Ⅱ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진행
- 46 Ⅱ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진행
- 48 Ⅱ 각지에서 5.1절을 뜻깊게 기념
- 50 Ⅱ 자력의 고귀한 창조물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
- 52 Ⅱ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 진행
- 54 Ⅱ 조선인민군 육해공군훈성종대 모스크바승리열병식에 참가
- 56 Ⅱ 아시아여자축구계를 또다시 뒤흔든 여자축구선수들
- 58 Ⅱ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 우승컵 쟁취
- 60 Ⅱ 조국의 영예를 떨친 력기선수들
- 61 Ⅱ 제2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

오늘의 조선

- 62 Ⅱ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
- 68 Ⅱ 원아들의 보금자리
- 72 Ⅱ 새 거리의 주인들
- 78 Ⅱ 석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 82 Ⅱ 룡약산기슭의 비누생산기지

표지: 창립 80돐을 맞이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뒤표지: 금강산의 구룡폭포
편집: 변일진, 김규성, 리금주, 조령, 조효성



10



40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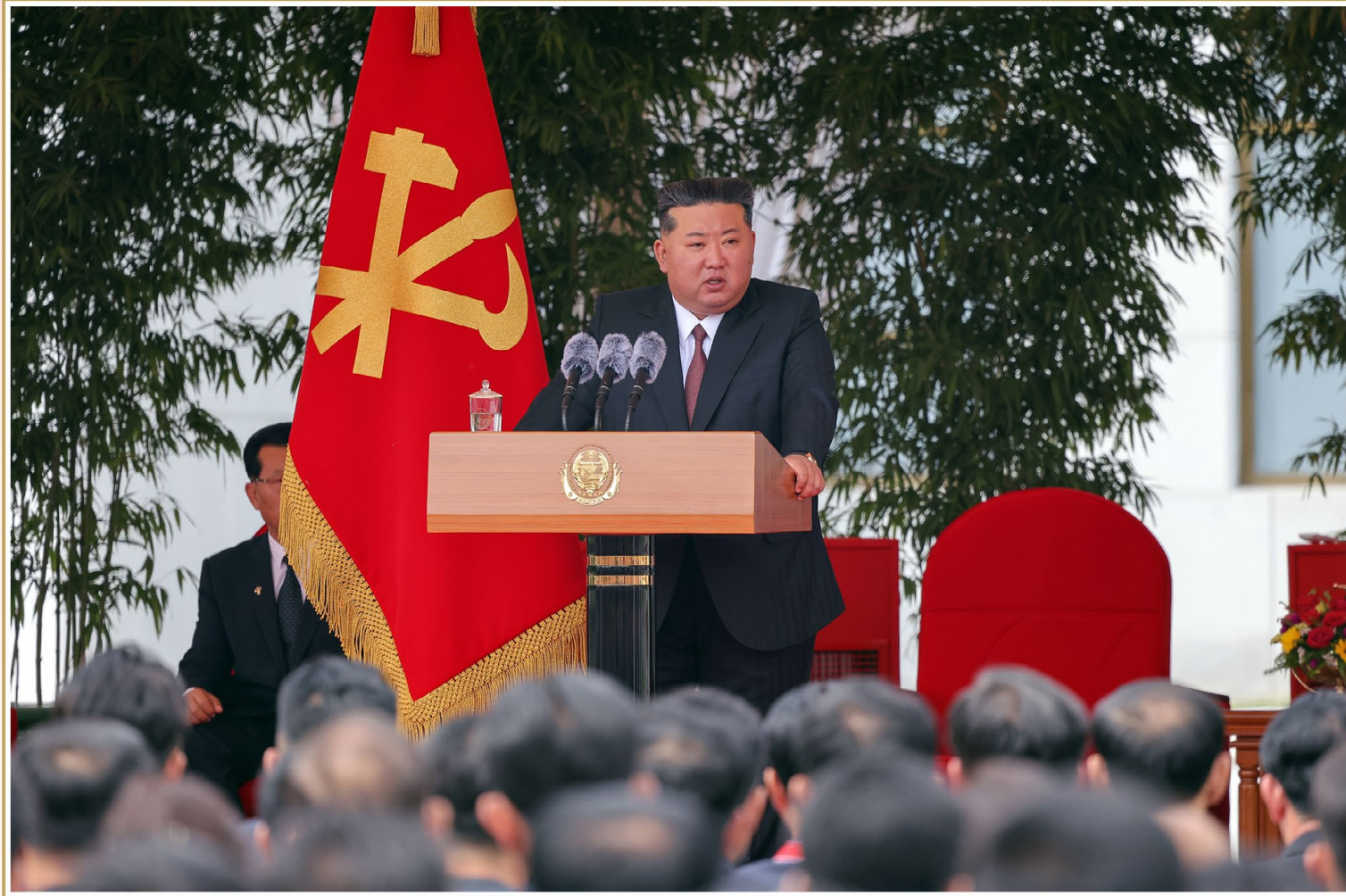


62



72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축하방문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1일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축하방문하시었다.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장 리영식 동지, 초급당비서 백형철동지가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 학교의 교육일군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시대 당건설과 국가부흥의 위대한 전기가 펼쳐지고있는 시기에 당의 조직사상적강화와 령도활동을 교육실천적으로, 학술적으로, 학업성파로 받들어가는 빛나는 공훈과 영예속에 뜻깊은 창립정주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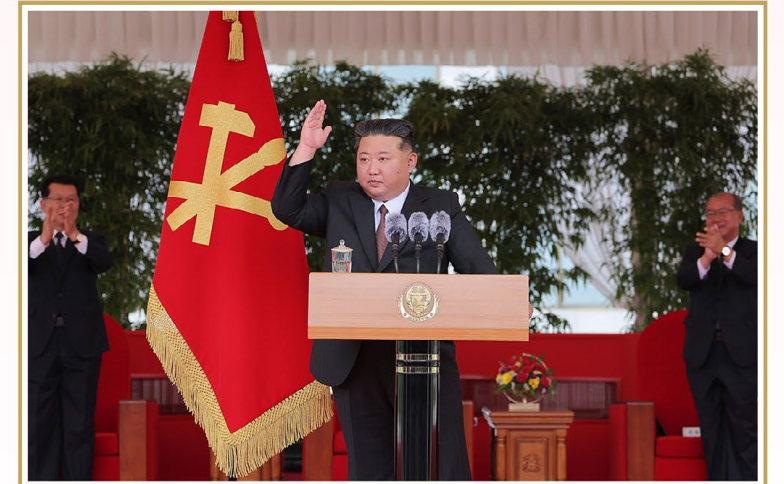
맞이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을 따듯이 축하하시었다.

기념행사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 전국의 도당학교 교육일군들과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당간부육성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로교육자들이 초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창립 80돐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초대교장으로 모시고 80명의 학생들로 창립을 선포한 1946년 6월 1일로부터 지나온 80년간 명실공히 조선로동당의





민음직한 간부육성기지로 즐기차게 장성하여왔으며 오늘도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충직히 복무하는 정치교육 기관, 당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하는 전략적보루로서의 신성한 본명을 추호의 흐림도 없이 빛내여가고있는 중앙간부학교의 특출한 지위와 관록, 값높은 명예를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간부들의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떠난 부강한 국가건설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으며 당간부육성은 천사만사중에 첫자리에 놓여야 한다는 창립의 그 뜻은 80년이 지난 오늘에도 절대의 진리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천시대를 경과하고있고 인민의 리상 실현을 위한 투쟁이 전례없이 확대심화되고있는 시점에서 우리 당이 당간부인재육성을 더욱 중시하는 전략적의도와 필연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이 강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당의 핵심간부들을 육성하는 원종장이 든든해야 하며 우리 나라 최고급의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월의 흐름과 끊임없는 세대교체속에서도 당정치학원이 자기의 성격과 본태, 사명에 충실하고 당의 후비들을 주체의 혁명관, 인생관, 도덕관을 지닌 정수분자들로 키워내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원칙들과 교육실천적



방향들을 상세히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또 하나의 의의깊은 출발점으로 되는 오늘의 영예로운 시각을 미래에 굳게 잇고 새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로정을 더욱 과감히 열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앞날에 영광만이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새시대 전당강화의 밝은 전도를 담보해주는 심원한 지침을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으며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붉은기정신의 제일체현자, 당의 영광과 미래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어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끝없이 충실할 맹세를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더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창당의 첫 기슭에서부터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진함없는 자양을 부어주는 당간부육성 기지들이 있어 우리의 당건설위업은 것처럼 간고한 혁명의 년대들을 경유하였지만 순간의 침체나 좌절을 몰랐다고 하시면서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진지한 연구태도, 실속있는 교수전략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집권당의 투쟁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와 같은 관록있는 교육진, 강력한 이론진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으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위대하고 업적이 거대하다고 해도 자기의 교대자들을 훌륭히 키워내지 못한다면 당의 전망적발전과 혁명위업의 줄기찬 계승을 기대할수 없다고, 중앙간부학교는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중대한 사명에 맞게 우리 당의 연구준립과 승승 발전을 위한 령도력과 전투력을 부단히 장전해주고 억년 청청함을 반석으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와 업적이 루적될수록 성스러운 첫 페이지를 귀중히 간직하고 변함없이 곳곳이 이어가는것은

혁명적당의 불패성의 담보이며 집권법칙이라고 하시면서 창당의 리념과 각오를 견지하고 발양시키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심화시키고 우리당 본연의 혁명적당풍을 체질화한 핵심골간들을 질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에서 중앙간부학교가 당사상리론건설의 기본진지, 두뇌진으로서의 신성한 지위와 본령을 줄기차게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창립정주년에 즈음하여 당의 백년미래와 관련된 신성한 교단에 높은 교육자적자질과 당적량심, 혁명적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중앙간부학교 교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역할이자 우리 당의 강화발전이고 우리 당건설의 천만년미래가 이 정치학원의 매 걸음걸음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학교가 앞으로도 언제나 당중앙과 뜻과 의지, 실천을 같이하며 당의 강화와 성스러운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더 힘차게 분투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중앙간부학교 창립정주년행사에 초대된 전국의 도당학교 교육일군들과도 당건설사에





길이 전해질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의 후비를 무장시키고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의 영예를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 교육사업에서의 일대 분투와 성과로써 영광스러운 정치학원의 본령을 더욱 훌륭히, 더욱 견결히 수행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창립 80돐을 기념하여 국제 경기들에서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명예를 떨친 여자 축구팀들의 시범경기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행사참가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관람에 앞서 2026년 아시아 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1위를 쟁취한 국가종합팀과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우승의 금컵을 들어올린 내고향팀 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 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장한 딸들인 미더운 여자 축구선수들이 어머니조국을 더 많은 우승의 금메달, 더 눈부신 애국의 금컵으로 떠받들어올리기를 축원하시면서 그들을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아버지원수님의 대해같은 정과 믿음을 받아안은 여자 축구선수들의 격양된 기세와 희열속에 이채로운 축구 경기가 시작되였다.

강한 승부심속에 진행된 경기는 기념행사의 마감을 인상깊게 장식하였다.

경기가 끝나자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한생의 추억으로 남을 꿈만같은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보낸 참가자들의 환희와 걱정이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으로 분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집권력사를 떠받들어온 우리당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들의 긍지높은 연혁들에 보다 혁혁한 교육성과들과 학적권위가 아로

새겨지기를 기원하시면서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 최고정치학원에 새기신 령도의 자욱은 당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을 천사 만사에 확고히 앞세워 주체혁명의 영원한 계승성과 불패성을 백년, 천년의 장구함으로 무궁하게 이어나가며 우리 당과 조국의 앞길에 더 밝고 희망넘친 부강번영의 전기를 과감히 펼쳐가시는 거룩한 행보로 새시대 당건설사에 기록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31일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이한 류형의 수정 및 토양온실들과 시험재배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농장의 생산 및 남새 과학연구정형과 경영관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1 150여동의 온실들에서 수집종에 달하는 갖가지 남새들을 매일 수백t씩 수확하여 애육원과 육아원, 초등학교들과 상업 단위들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 지역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는 농장 경리의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깨끗한 량심과 생산실적으로 실증해가고있는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남새생산에서는 에네르기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작물들의 품종별 생육조건에 따르는 효율적인 적정환경을 보장해주어 원가를 낮추고 사계절 남새를 재배하도록 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농장들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늘이고 운반수단의 자동화를 실현하라는것은





당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정책적문제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에서 나서는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남새종자육종과 연구, 재배, 보급사업을 종합적으로 주도하는 학술지도단위, 과학연구 및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바로하여야 전국각지에

새로 일떠서는 온실농장들이 균형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흐름을 추동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남새보관시설들과 판매소들을 늘여 도안의 인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보장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온실남새부문에 선진적인 새 기술들을 신속히 보급하는 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 온실전문가육성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온실농장들의 전망적발전을 위한 중요과업들을 제시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난 유채밭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남새바다, 유채꽃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위화도지구의 변천과정이 떠오른다고, 이 전변상이야말로 새시대 천지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사회주의조선의 긍지높은 축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명실공히

당정책이 집대성되어있는 직관물이고 실물교육의 교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위화도지구의 지역개발 사업을 시발로 하여 지방의 획기적인 변천을 위한 보다 완강한 분투와 노력을 경주할것이며 반드시 전국의 모든 농장과 지역들을 사회주의문화농촌,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킬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당의 지방발전정책실행을 위한 세번째 해 과업에 따라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에 새로 일떠서고있는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종합봉사소,



남새종합가공공장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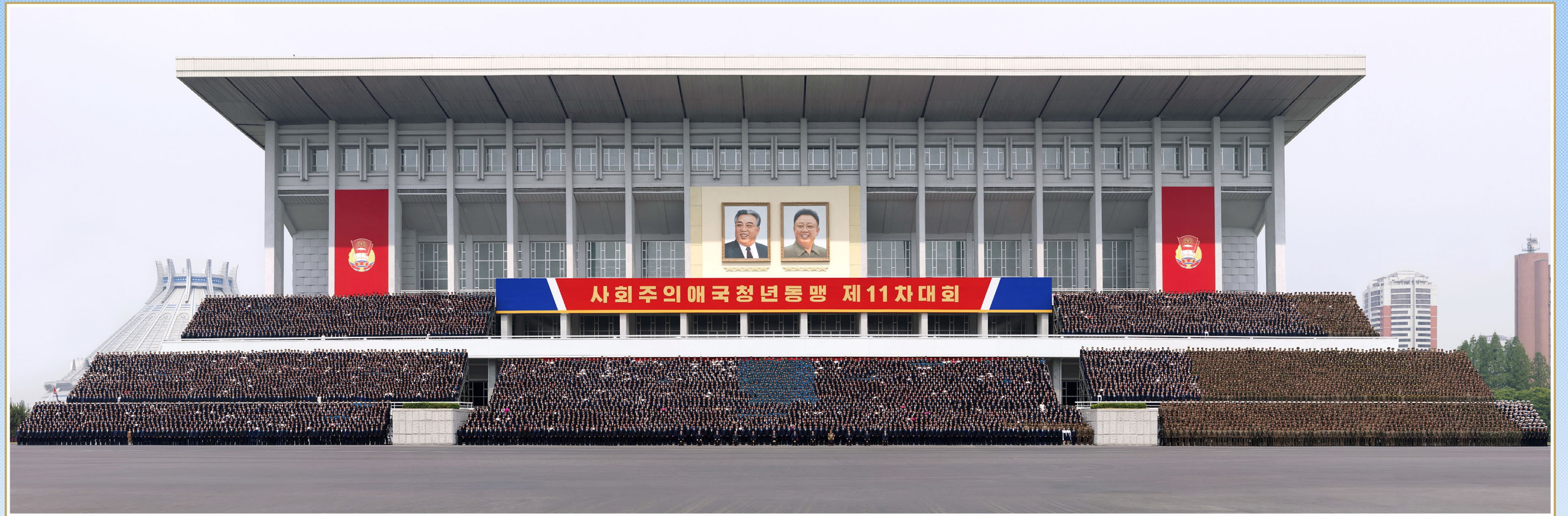
당의 숙원실현을 위한 2026년의 전투기록장에 보다 큰 기적과 위훈을 새겨갈 충성의 일념안고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해 이곳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은 현재 총공사량의 50%계선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준공을 선포한 뜻깊은 자리에 오늘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병원과 다기능화된 봉사소 그리고 전문화된 남새종합가공공장이 기운차게 일떠서는것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이 대상들까지 완공되게 되면 위화도지구는 새시대 지방변천의 본보기, 표준으로 또다시 이름을 울리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에 새겨가는 애국의 보무와 더불어 조국의 대지는 더 풍요롭고 아름다와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건설자들이 영예로운 위업수행의 전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투쟁기를 더욱 과감하게 켜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2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주시었다.

아버지원수님께 남녘청년대표들이 다함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11기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따듯이 축하해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빛내이는 길에서 특출한 위훈과 공산주의적 미풍을 발휘한 청년대표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과

인민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속에 열린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마친 대회참가자들을 따듯이 축하격려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나온 년대들에도 당의 사상과 리상은 항상 청년들자신의것으로 되어왔고 우리 국가 건설과 발전의 로정이 청년들의 값높은 삶의 행로와 일치되어왔지만 오늘의 시대처럼 청년들의 비상한 애국적 자각과 충천한 혁명열, 용감무쌍한 분투가 사회주의 건설의 광범한 전구들을 확고히 지배한 때는 없었다고 하시면서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청년들의 고결한 품모와 강철의 전투력이야말로 우리 국력의 자부스러운 상징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청사에 청춘의 피와 땀으로 쓴 페이지들이 날로 두터워지고 거창한 변혁시대와

더불어 청년들의 전설적위훈의 전기들이 끊임없이 수놓아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긍지로, 우리 위업의 거대한 동력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미증유의 영웅성과 용감성으로 충만된 시대에 애국청년들의 강력한 전위대인 청년동맹의 힘과 명예는 계속 승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앞에 새롭고도 방대한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는 현실은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과 용기충천한 역할을 요구하고있다고, 모든 청년들을 당의 리상실현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그 길에서 청춘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열혈의 청년애국자로 교양육성하는데 동맹사업의 천사만사를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애국의 기치아래 굳게 뭉친 청년

대오의 힘찬 보무이자 새로운 변혁시대의 약동이며 우리 위업의 활기찬 전진이라고 하시면서 청년집단의 혁명성과 전투력이 세대를 이어 즐기차게 유전되도록 기충조직강화에 주력하며 청년들을 시대의 개척자, 돌격투사로 키우는 귀중한 자양인 혁명적인 대중운동, 사회주의애국운동을 맹렬히 전개하여 당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려정이 그대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청춘의 위훈들로 충만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이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비상히 격양된 혁명적기세와 애국적열의를 힘있게 인도하여 조선청년운동의 보다 강력한 활성기를 과감히 펼쳐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14일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9기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을 만나시여 축하하시고 공포있는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수고를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를 당의 두리에 억척으로 뭉친 우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단결력과 혁명성을 시위하고 당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진군을 가속화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빛내인 참가자들을 고무격려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직맹 제8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년간은 당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충성심과 애국적자각,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비할바없이 힘있게 과시된 시기였다고, 전례와 한계를 돌파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건설전반을 역세게 떠밀어온 로동계급의 특출한 위훈과 직업동맹의 사상동원자적 역할은 전면적부흥의 위대한 개척기를 열어온 우리 당에 큰 힘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앞에 도래한 거창한 격변기는 창조와 건설의 주력인 로동계급의 변함없는 기수적 활약과 비상한 분투를 요구하고있다고,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의 신조를 지니고 자력갱생, 자생자활의 투쟁정신을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이 발휘해나가는것이 사회주의건설의 현 단계에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앞에 나서는 기본 임무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투쟁으로 우리 조국을 무궁토록 강대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려정에서 대회참가자들이 모든 부문과 단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기수, 핵심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7일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취역을 앞두고 진행하는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 《최현》호에 승선하시어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항해계획을 료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해병들이 현대적인 군사기술력의 종합체인 신형구축함을 능숙하게 운용할수 있는 전문적자질을 철저히 갖추기 위한 훈련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의 종합지휘소와 무기체계

조종실을 비롯한 여러 전투근무공간과 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함의 작전준비실태를 료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서해상 120n·mile 구간에서 함의 각이한 기동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항해시험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의 전투기동성이 작전운용상 요구에 부합되고 우리식 함선조종체계의 우월성이 확증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의 작전취역을 위한 모든 시험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계획대로 오는 6월중순 해군에 인도할데 대하여 명령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조하는 신형구축함들의 소속과 배치, 작전임무에 대하여 규제하시면서 그를 위해 해군에서 수행할 일련의 과업들에 대하여 밝히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군기지시설과 관련한 중요과업에 대하여서도 특별히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진행된 함선건조부문 일군들과의 협의회에서 새로 건조하는 3호함, 4호함의 설계변경문제와 새롭게 계획한 함상무장체계구성문제를 심의한 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중요결론을 하시면서 수정변경된 함선건조계획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성격을 띤다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 군대의 전략적행동의 준비태세를 근본적으로 갱신하게 되며 전쟁억제력구축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그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는 신뢰성있고 강위력한 국방연구집단과 조선공업이 있다고 하시면서 새로 변경된 결정과업도 이들의 자력갱생의 불가항력적 위력에 의하여 반드시 관철될것이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반드시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드림없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전망적인 해군건설구상과 일련의 계획사업들에 대하여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구축함의 전체 해병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적극 고무격려하시면서 중대한 사명감과 고도의 책임감을 안고 훈련에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함으로써 전투력을 비상히 제고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의 선수갑판에서 구축함해병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정은동지를 또다시 몸가까이 모시고 크나큰 영광과 믿음을 받아안은 해병들은 우리 당의 영웅한 바다초병답게 막강한 실전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맹훈련을 활발히 벌려 우리 국가의 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전쟁억제의 일익을 담당한 본연의 성스러운 사명에 무한히 충실할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군의 사, 려단 지휘관회합을 소집하시고 그들을 만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17일 전군의 사, 려단 지휘관들의 회합을 소집하시고 그들을 만나시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 그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마음속에 송엄히 안고 사는 성스러운 당중앙청사에서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옵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지휘관들의 가슴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설레이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나오시자 탁월한 령군철학과 령도에술로

우리 군대의 무궁무진한 강화발전을 영광과 승리에로 즐기치게 향도하시는 혁명의 걸출한 령도자를 우리러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활화로 분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바쳐가며 련합부대들을 이끌고있는 지휘관들의 남다른 수고를 깊이 헤아리시며 그들을 따듯이 격려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의 각급 련합부대 지휘관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일련의 중요군사문제들에 대하여 담화를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련합부대장들이 지니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우리 군대를 세계

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무장시켜야 할 력사적위임이 바로 다름아닌 사, 려단장들에게 맡겨져있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군사정치과업수행에서 제기되는 주요방향에 대하여 말씀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훈련은 군대의 본업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현대전의 변화되는 양상과 우리 군대의 발전추이에 맞게 훈련체계를 정비하며 실용적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우리 군대를 군사편제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를 정확히 집행해나가는데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군사기술장비들이 급속한 속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부대들의 전투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 사업들도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특히 남부국경을 지키고있는 제1선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령도 방위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전쟁을 보다 철저히 억제 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서 앞으로 취하게 될 군사조직 구조개편과 제1선부대들을 비롯한 중요부대들을 군사 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현대화에 대한 전망과 군사기술장비들의 진보에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고있다고,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앞으로의 5개년계획기간의 과제들이 수행되면 우리 군대의 전략적행동의 준비태세는 현재와 대비할수 없게 갱신되게 되며 전쟁역제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 하게 된다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의 지휘관들과 각급이 계급의식, 주적의식을 계속 높이며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주권 사수의 성스러운 본령에 충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물리적힘에 앞서 우선 사상과 신념으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사상과 신념은 물리적힘의 한계도 뚫는 유일무이한 우리 군대의 전투력의 비결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자기 위업에 대한 굳은 믿음을 억세게 간직하고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벌려나감으로써 사상과 신념으로 적을 압도하는 조선인민군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며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의 명예와 지위를 굳건히 고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 지휘관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사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성스러운 책무수행에 충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전군의 연합부대장들과 함께 당중앙트락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령장을 몸가 가까이 모시고 대해같은 믿음과 무상의

영광을 받아안은 인민군 각급의 연합부대장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강령적가르치심을 투쟁의 좌표로 새겨 안고 당과 혁명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 그이께서 이끄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가장 강한 시대 조선인민군 지휘관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하시고 상반기도 주요무기 전투기술기재생산실태를 료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중에 남부국경장거리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자행평곡사포생산 실태를 료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대시험계획에 따라 진행된 신형 155mm자행평곡사포차의 각이한 주행 및 지형극복, 잠수도하시험, 개량포탄사격시험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집단과 로동계급이 기동성과 화력타격능력이 매우 높은 새세대 포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사상과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감한 창조본때와 혁명적인 기세로 련일 실적을 올리며 시달된 포무기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로력적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기업소로동계급에게 전투적인 격려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가 새로 생산하고있는 신형 155mm자행평곡사포무기체계의 우월성에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이 무기체계가 가지는 군사전략적가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장갑무기연구소와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하고있는 신형주력판크와 각이한 발사대차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6년에도 역시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투쟁행정에 전무한 갱신기록이 썩여질것이라고 확인하시면서 모두다 최대의 애국인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즐기차게 분투하고 노력함으로써 날에 날마다 비약적인 성과를 쟁취해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11일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김강일동지,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동지, 국방성 병기심사국장 김명선동지,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을 방문하시고 2026년 상반기 군수생산과제수행실태를 료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종 포탄과 총탄생산에서 기록적인 장성을 이룩하며 우리 무장력의 전투력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는 군수로동계급의 애국적헌신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을 고무격려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수공업의 구조와 생산체계, 시설들에 의연 결점들이 잠재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생산구조의 실용적인 갱신과 생산공정들의 합리적인 배치 등 현대화에 주력하며 기술관리, 인재관리, 로력관리의 최적화를 실현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부단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기업소들에서 제품검수 공정체계의 현대성을 제고하며 검수지표들을 더 과학적으로 세분화하고 엄격히 준수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생산설비현대화와 생산환경 조건개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증진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총탄생산공장의 생산정형을 료해하시면서 구경별 고정밀다목적탄과 특수기능탄들, 훈련탄들의 수요와 그에 따르는 생산체계확립을 위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박격포와 곡사포무력을 강화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 무력의 전망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화된 포무기생산종합체와 저격 무기생산공장을 설립하며 총포탄생산공장들의 생산 구조와 현대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주요 과업들을 밝히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 계급이 당 제9차대회정신과 과업을 높이 받들고 백배한 자신심과 무진한 창조력으로 국방력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기세차고 완강하게 분투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제시하신 과업들과 중요지시들은 우리 군수 공업현대화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진로를 밝힌 과학적이고 강령적인 지침이며 군수생산의 질량적, 기술적변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당의 국방건설정책실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중대한 이정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3일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의 지도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다 정교한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업지표들과 전망생산계획에 대하여 료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물질생산관련부문에서 최근 당중앙위원회 주요전원회의들에서 채택된 결정들을 정확히 집행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핵전문가집단이 핵물질생산의 주체화 실현에서 나서는 결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생산공정의 모든 계통요소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기급 핵물질생산토대를 더한층 강화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치하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지난 5년간의 핵무력강화노정을 경과하며 무기급 핵물질생산능력은 종전의 2배를 룡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핵력량증강노선은 지금 핵과학연구집단이 도달한 고도의 기술력에 의해 철저히 관철되고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9차대회는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기 위한 핵무력강화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결정하면서 공화국핵무력의 전망적수요를 고려하여 핵물질생산능력을 더 확대하며 그에 따라 핵무기보유수를 계속하여 늘일데 대한 전략적결정을 채택하였다고 상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포악무도한 적수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동반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과 각일각 위태하게 변화되는 현존위협들과 잠재적인 위협들, 예측불가한 전망적위기들을 감안할 때 나라의 안전과 리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담보이며 강력한 안전 장치인 핵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역사적사명의 절박성과 책임성은 더한층 부상되고있다고 평하시였다.

이 모든 복합적인 주객관적환경의 변화를 대하고 주동적으로 대처하는데서 우리 당과 정부의 립장은 매우 명백하며 따라서 전쟁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실행에서 중추를 이루는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불변한 정치군사적 립장이며 책임적인 의무이라고 단언하시였다.

이날 핵무력강화와 관련한 중요협의회가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물질생산능력이 대폭 확장된 조건과 정교해진 핵기술의 발전상황은 핵무력강화의 새로운 다음 단계 투쟁으로 이행할수 있는 성숙된 환경을 지어주며 보다 방대한 계획들을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화국핵무력의 질량적강화를 비약적으로 가속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지침이 명시된 중요결론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결론을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였다. 《우리는 오늘 핵활동에서의 중요한 수자들을 갱신 하였으며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핵억제력구축에서 전술 및 전략적수요측면들이 전면적으로 고려되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우리는 매우 책임적이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국가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하였다. 이것은 수사적으로 표현할수 없는 경이적인 변화이고 성과이며 핵능력고도화를 위한 전환적인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사변으로 된다. 지난 5년간의 고귀한 투쟁로정을 떠나 이러한 오늘의 핵잠재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나는 오늘 다시한번 우리의 핵과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능을 책임적으로 행사하여 우리의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



하려는 우리의 행동의지는 더욱 철저하고 과감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핵전문가집단이 국가의 오늘과 미래의 안전을 걸고 내린 당결정의 완벽한 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사명수행에 계속 충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새로운 핵물질생산공장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는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안전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불변한 핵무력강화의지와 비상한 잠재적 능력, 무제한한 전망을 다시한번 뚜렷이 각인시킨 중대한 계기로 된다.



영생의 관상에 쌓이는 꽃송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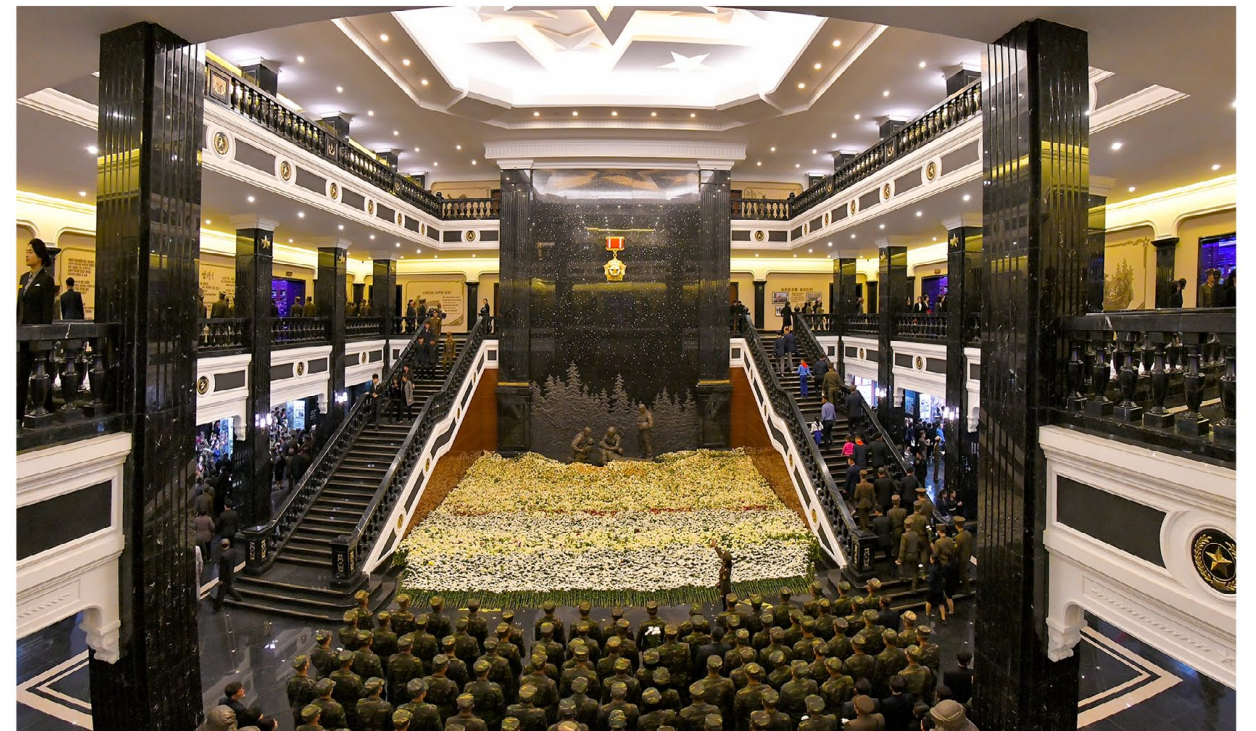
조국의 명령을 받들어 정의와 존엄을 위한 성전에서 발취한 참전용사들의 영웅적위훈과 숭고한 정신을 길이 전하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의 준공소식에 접한 온 나라 인민의 경의심이 렬사들의 넋이 깃든 성지로

끝없이 흐르고있다.

기념관에 전시된 사진들과 유물, 위훈자료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조국의 명령에 충실하였을뿐 아니라 최후의 시각에도 조국의 번영을

바라며 생을 마친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안았다.

사진 라평렬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진행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청년동맹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청년대군의 거대한 힘을 우리당 투쟁강령실현으로 결집시켜 사회주의전면적 륭성발전의 강위력한 추진력으로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실천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제룡동지가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전체 대표자들의 일심충성의 열정속에 채택되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치문화사업과 강습이 있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기념 청소년학생들의 야회 및 해불행진 《당중앙따라 천만리》와 청년중앙예술선전대와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당의 기치따라 애국청년대군 앞으로!》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는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며 조국을 받드는 한길에서 애국청년의 명함을 줄기차게 빛내여갈 청년전위들의 신념의 맹세를 엄숙히 천명하고 전인민적인 애국의 보무에 활력을 더해준 의의깊은 계기로 주체의 청년운동사에 길이 새겨졌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기념 청년중앙
예술선전대와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진행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기념 청소년학생들의 야회 및 해불행진 진행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진행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가 5월 11일과 12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1.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조선직업총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
3.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재룡동지가 전달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원중동지가 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는 둘째 의정으로 조선직업총동맹 규약개정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회는 직업동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으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지도

기관 선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먼저 직총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직총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후보자들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직총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새로 선거된 제9기 직업동맹중앙지도기관 성원들로 대회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위원회는 대표자들이 제기한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하고 결정서초안에 보충반영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가결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각지에서 5.1절을 뜻깊게 기념

은 나라 전체 인민이 5.1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었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36돛기념 중앙보고회가 5월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빛나게

완수할 기세드높이 일터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어나가는 혁신자들을 만나 고무 격려하였다.

각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5.1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날 극장, 야외무대들에 다채로운 공연종목들이 올라 명절의 환희를

더 해주었다.

급양봉사단위들에서는 명절을 맞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가 진행되었으며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문화휴식터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이었다.



자력의 고귀한 창조물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서 의미를 가지는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결되었다.

두개의 언제와 함께 단천1호, 5호, 6호발전소들을 일떠세움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 진행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가 5월 23일과 2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에 보낸 축전을 남승우부회장이 낭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자격심사보고가 있는 다음 대회 의안으로 《총련의 제25기 사업총화와 제26기 파업에 대하여》, 《총련강령 및 규약의 개정에 대하여》, 《제25기 재정결산

및 제26기 예산안에 대하여》, 《총련중앙기관 역원선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박구호제1부위원장 겸 조직국장이 총련 제26차 전체대회 첫째 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조국의 각 기관, 단체들과 일군들 그리고 해외동포단체들, 일본의 각 단체 및 개인인사들, 해외의 친선단체들이 보내온 축전들과 축하인사록화편집물이 소개되었다.

재일본조선청소년학생대표들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총련 제26차 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사업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안인 총련중앙위원회 보고를 대회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둘째 의안인 총련강령 및 규약개정심의위원회 보고, 셋째 의안인 재정결산 및 예산안심의위원회 보고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허종만동지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선거하였다.

또한 제1부의장, 부의장, 사무총국장, 총련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총련중앙위원회 제26기 제1차 회의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련중앙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출하였다.

대회기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를 축하하는 공연과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ПОБЕД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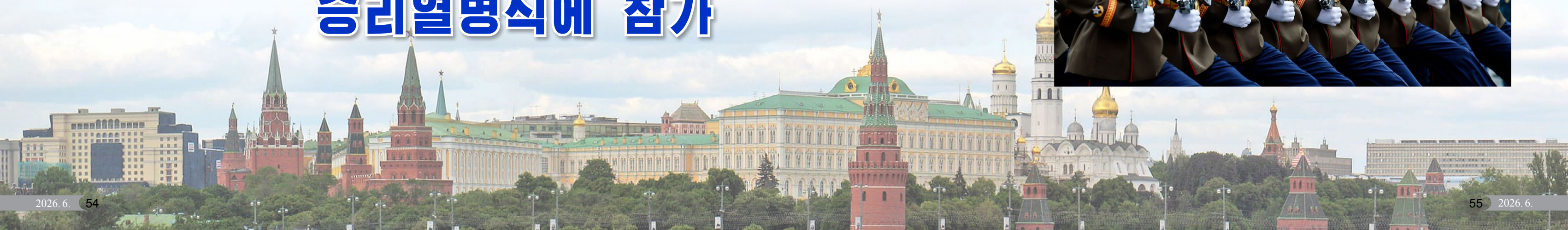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5월 9일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81돐경축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룡해공군혼성중대가
모스크바승리열병식에 참가하였다.
최영훈륙군대좌가 조선인민군 룡해

공군혼성중대를 이끌고 붉은광장을
행진하였다.
열병식이 끝난 후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동지는
조선인민군 열병중대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인민군 룡해공군혼성중대 모스크바 승리열병식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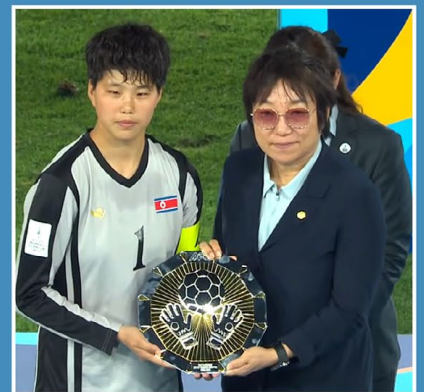
아시아 여자 축구계를 또다시 뒤흔든 여자 축구 선수들



우리 나라 팀에 경기도덕상이 수여되었다.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을 수여받은 유정향선수



최우수문지기상을 수여받은 김선경선수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 우리 나라 팀과 일본팀과의 결승경기가 지난 5월 17일에 진행되었다.

우리 선수들은 일본팀을 5:1로 이기고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였다.

이번 대회에서의 우승으로 우리 나라 팀은 아시아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도합 5차례나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며 국제 축구연맹 2026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 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 2025년 -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

우승컵 쟁취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이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1위를 하고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과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팀 사이의 결승경기가 5월 23일에 진행되었다.
결승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일본선수들을 1:0으로 이겼다.
시상식에서는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1위를 한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김경영선수에게 최우수선수상이 수여되었다.



조국의 영예를 떨친 력기선수들

2026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개, 도합 3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8건의 세계신기록과 10건의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리숙, 리원주선수들은 각각 2건의 세계 및 아시아신기록을, 로광렬선수는 1건의 세계신기록과 2건의 아시아신기록을, 송국향, 방은철, 리룡현 선수들은 각각 1건의 세계 및 아시아신기록을, 김일경선수는 1건의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특히 여자 63kg급금기에 출전한 리숙선수는 이번 대회의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제24차 평양봄철국제상품 전람회 진행

제2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었다.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람회에는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조선만경무역회사,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와 러시아, 중국, 몽골, 스위스, 타이의 290여개 기업체와 회사

들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우수한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전람회는 자주와 친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자기의 사명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

우리 당은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을 일관한 정책,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

회의에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 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하여 각 도들에 학생가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들이 일떠섰으며 학생





교복과 신발을 생산하는 전문공장들도 해당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새로 건설되었다.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에 대한 국가적인 생산체계가동과 함께 도시와

농촌, 산골마을, 섬초소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있는 곳마다에 공급하기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행의 제도적 담보가 마련되었다.

해마다 해당 기관들에서 새년도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생산과 공급을 위한 대상장악, 지도서에 준한 몸재기, 신발호수선정 등을 선행시켜 전국적인 통제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생산에 진입하도록 하는 체계와 질서가 세워

졌다.

상업망을 통하여 공급이 진행되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매 학생에게 이름표를 붙인 교복과 함께 가방과

신발을 일일이 포장하여 학교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특히 공급전에 학교들에 꾸려진 옷 입어보기칸에서 옷입어보기를 진행하고

피복기술자들이 현지에서 부족점을 퇴치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학생들 누구나 몸에 꼭 맞고 보기 좋은 교복을 입을수 있게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이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되고있다.



해마다 전국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민들레》 학습장이 공급되고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줄 연필, 원주필, 크레용, 필갑을 비롯한 갖가지 학용품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하고있는 룡봉학용품공장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새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않는 사회주의 제도가 있기에 이 땅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강진성





원아들의 보육자리

평양애육원이 창립 80돐을 맞이 하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평양애육원은 원아들을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꾸려져있다.

아담하고 특색있게 설계된 애육원은

모든 생활환경과 조건이 원아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되게 꾸려져있다.

특히 애육원의 벽들에 그려진 동화 세계를 방불케 하는 만화그림들, 교양실, 지능놀이실, 물놀이장 등은 원아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한부분으로 정답게 자리잡고있다.





미끄럼대, 룡구대, 어린이자전거를 비롯한 여러가지 유희기구들과 놀이감들이 많은 놀이장은 원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자연관찰실과 지능놀이실은 원아들에게 자연에 대한 표상과 지능계발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애육원에서 원아들은 소질에 따라 자기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피아노, 타악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악기들과 무용, 성악, 서예 등을 배우며 원아들모두가 재간둥이들로 자라나고있다.

지난 기간 평양애육원 원아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무대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였다.

평양애육원은 오늘 원아들의 행복 넘친 보금자리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꽃피어나는 원아들의 궁전으로 되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강진성



새 위리의 주인들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리념에
떠받들려 새로 일떠선 새별거리와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에 인민의 기쁨이
넘치고있다.





수도 평양의 화성지구 새 거리에
복받은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넘쳐
나고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화성지구에 네번째로 일떠선
새 거리이다.

지난 2월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환희로운 축포란들이 터져올랐던

이곳에 평범한 근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시원하게 뻗은 대통로와 특색있게

일떠선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
지난해와 또 다른 건축양상을 가진
각종 편의봉사망들...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에서는 물론
각이한 봉사기능을 가진 많은 봉사
기지들에서도 인민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조형화와 예술화, 실용성과 편리성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새별거리 새집의 주인들도 해외군사작전 참전렬사유가족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거듭 안겨주는 우리 당의 은정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지난 4월 1일 새 학년도를 맞으며 화성구역 송암1고급중학교와 송암2고급중학교가 개교하였다.
 훌륭하게 일떠선 새 학교들에서 자식들이 공부한다는 근로자들의 남다른 기쁨이 집집마다에 차넘치고 있다.
 새 거리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새 보금자리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이 터치는 걱정은 끝이 없다.

사진 리철진, 송일봉
 글 김선경



화성구역 송암동 김희선

《전쟁로병이라고 궁궐같은 새집을 안겨주니 정말 송구하고 몸돌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자고 늘 말하곤 한다.》



화성구역 송암동 오동만

《영예군인으로 제대되어 새집에 두번째로 이사하였다.
 살림방들이며 세면장 등 집안의 곳곳에서 집주인들의 편의를 헤아리는 국가의 다심한 은정을 느꼈다.》



화성구역 송암동 량은별

《아이를 많이 낳았을뿐인데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새집을 주었다.
 친척들은 물론 한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석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

남포시 룡강군에 굴지의 천연석재 생산기지인 오석산화강석광산이 있다.

1985년 10월에 조업한 광산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판석류와 란간 및 란주류, 경계석 등 다종다양한 석재들을 생산하여 나라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그 과정에 광산의 규모도 달라졌다.

하나뿐이던 광구도 여러개로 늘어나고 가공설비들도 현대화되어 원석채취와 석재생산능력이 향상되었다.

광산에서는 이룩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자체의 기술력량과 생산토대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최근년간 광산에서는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결과 많은 석재들을

중요건설장들에 보내주었다.

광산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부터 높은 생산목표를 내세웠다.

선행공정을 맡은 원석생산단위들에서는 박토처리를 앞세우면서 선진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원석을 생산하고있다. 굴착기와 기중기, 자동차들의 협동을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생산된 천연석재들은 나라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원석가공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을 회수하여 여러 규격의 석재들을 생산하고있다.

지금 오석산화강석광산의 노동계급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매일 많은 량의 석재들을 생산하고있다.

사진 라평렬, 글 김선경



강화하여 원석들에 대한 운반회수를 늘여나가고있다.

원석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가공단위들에서도 증산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설비들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혁신안들과 새로운 방식의 연마방법을 창안도입하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도 매일 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다.



룡악산기술의 비누생산기지

- 룡악산비누공장을 찾아서 -



수도 평양의 품치수려한 룡악산기술에 자리잡고있는 룡악산비누공장은 《룡악산》상표를 단 비누제품들과 함께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옷물비누들만 보더라도 세척력이 높고 사용시에 피부나 섬유 손상이 전혀 없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2016년 11월에 조업한 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있다.

공장에서는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비누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품개발과 설비 현대화를 주선으로 내밀고있다.

이곳에서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기준으로 삼고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향기의 지속성과 세척력을 비롯한 질적 지표가 뚜렷이 개선된 새로운 비누제품들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조업당시 31가지에 불과했던 《룡악산》제품이 지금은 270여가지로 늘어났다.

공장의 제품들은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에서 최우수상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여러 전시회들에서 많은 상장과 메달들을 수여받았다.

사진 라평렬, 글 김선경



인민들이 즐겨 찾는 《통약산》비누제품들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비누



© 조선화보사 2026
화보 《조선》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 중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7-26088052461